

연구소 소식

1. 표준어 사정 작업 진행

본 연구소는 국민 언어 생활의 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금년 9월부터 표준어 사정 작업에 착수하였다. 이 표준어 사정 작업은 '국어대사전'과 '새한글사전'에서 공통된 것 또는 국어심의회안(1979년)과 국어연구소안(1987년)의 어휘를 우선 채택하고 이 네 가지가 일치되지 않거나 어느 한 곳에만 있는 것을 중심으로 심의하고 있다. 전문 용어는 해당 전문 기관에 돌리도록 하였다.

사정된 표준어를 중심으로 '표준어 고유 어휘집'을 발간할 예정인데, 제 1집은 1988년에, 제 2집은 1989년에 발간할 예정으로 진행하고 있다. 표준어를 심의 사정하는 표준어 사정 위원회의 심의 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 : 金亨奎(국어연구소장)

위 원 : 李應百(서울대 교수), 金敏洙(고려대 교수), 金錫得(연세대 교수), 李炫
醵(서울대 어학연구소 소장), 金上俊(KBS 한국어연구회 간사), 丁濬燮
(문교부 국어과 편수관), 洪承五(서울대 교수), 鄭良婉(한국정신문화연
구원 교수), 兪萬根(성균관대 교수).

2. '어휘 빈도수 조사 연구' 사업 착수

현재 한국인의 어휘 사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어휘 빈도수 조사' 작업을 착수하게 되었다. 1956년에 문교부에서 '우리말 말수 사용의 잦기 조사'를 내놓은 바 있으나 오랜 시일이 지나, 그것으로는 그간 엄청난 변동상을 겪은 국어 어휘의 실태를 파악하기에 부족하여 새로운 조사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 조사가 이루어지면 현대 국어의 체계를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며 국어 사전 편찬이나 교육용 기본 어휘 선정, 교과서 편찬에 커다란 참고 자료가 되리라 믿는다.

이 조사 작업을 위하여 국어 학자와 컴퓨터 관계 전문가들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고 1987년 12월 14일 제 1차 회의를 가졌는데, 연차적으로 본격적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자문위원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金亨奎(국어연구소장), 許雄(한글학회 이사장), 李應百(서울대 교수), 李基文(서울대 교수), 金完鎭(서울대 교수), 南廣祐(인하대 명예교수), 金敏洙(고려대 교수), 金錫得(연세대 교수), 유 경희(데이타통신 연구위원), 신 동필(한국과학기술원 부설 시스템공학센터 인공기능 연구부장).